

감독 절반 교체·스타 대이동... 농구판 '꿀잼'

2025-26 프로농구 3일 개막

일정 편하게 2주 앞당겨 스타트
지난 챔피언 LG-SK 개막전 빅뱅
문경은 kt·이상민 KCC 감독 복귀
MVP 가드 허훈, 친형팀 KCC 품
이정현·이관희, DB·삼성 유니폼
팀 맞바꾼 '대표 양숙' 활약 불만

스타 선수들의 '대이동'과 '사령탑 절반 교체'로 뜨거운 비시즌을 보낸 프로농구가 2025-2026시즌 정규리그로 돌아온다.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는 10월3일 막을 올린다.

이번 시즌 프로농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개 구단이 6라운드(54경기)씩 치르는 정규리그가 내년 4월말까지 펼쳐진 뒤 상위 6개 팀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플레이오프가 이어진다. 10월3일 오후 2시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창원 LG와 준우승팀 서울 SK가 맞붙는 공식 개막전이 창원체육관에서 열리며, 같은 시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 부산 KCC가 격돌한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엔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주 DB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맞붙는다.

이번 시즌은 개막일이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다. 리그 일정이 빡빡하다는 구단들의 의견에 따라 한국농구연맹(KBL)이 경기일 사이 간격을 늘리고자 개막을 당겼다. 정규리그엔 평일 각 1경기, 주말 3경기씩 주당 11경기가 열려 지난 시즌의 13경기보다 줄었고, 따라서 경기일 사이 간격이 늘어났다.

정규리그 개막이 당겨지면서 지난해까지 개막을 앞두고 열렸던 컵대회 대신 팀당 2경기씩 치르는 시범경기가 14년 만에 부활해 '오픈 매치 데이'라는 이름으로 28일까지 열렸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팀의 감독이 바뀌는 흔치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팀수



21일 열린 LG와 KCC의 시범경기 점프볼 모습.

원 kt·현대모비스도 수장을 교체해 '갈바'라게 가세했다. 대세는 베테랑 사령탑의 귀환이었다.

과거 SK에서 2017-2018시즌 우승 등 성과를 냈던 문경은 감독이 kt 지휘봉을 잡고 현장 사령탑으로 돌아왔고, '영원한 오

빠' 이상민 감독은 KCC 코치에서 승진해 삼성 시절(2014~2022년) 이후 프로 감독으로 재도전에 나섰다.

2010~2023년 인천 전자랜드와 그 후신인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지휘하며 꾸준히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왔던 유두훈 감독은 안양 정관장에 17년 만에 복귀했다.

여기에 선수 시절 현대모비스의 '레전드'였던 양동근 감독, 프런트와 전력분석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고양 소노의 손창환 감독이 프로 사령탑으로 첫선을 보여 새로운 바람을 예고한다.

새 등지를 탄 스타급 선수들도 많이 리그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프로 데뷔부터 kt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해 온 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가드 허훈이 친형 허웅이 속한 KCC로 이적해 형제가 함께 뛰게 된 것이 '에어컨 리그'의 최대 이슈였다.

허훈을 보낸 kt는 SK의 상징적 선수였던 김선형을 품었고, 김선형이 빠진 SK엔 한국가스공사의 주축이었던 김낙현이 합류했다.

프로농구계의 대표적인 '양숙' 이정현, 이관희는 소속팀을 맞바꾸 이번 시즌 각각 DB, 삼성에서 뛰는다.

'리바운드 왕' 라건아가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KBL 무대에 돌아온 것도 기대를 모은다.

허훈마저 품은 '슈퍼팀' KCC가 지난 시즌 '9위 추락'의 굴욕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승 전력을 대부분 유지한 LG가 KCC와 더불어 우승 후보로 평가 받는다.

문경은 감독과 김선형이 다시 뭉친 kt, 리그 최고 외국인 선수 자밀 워니의 위력이 여전한 SK 등도 상위권 전력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까지 프로농구 최초로 '4년 연속 최하위'에 그친 삼성의 행보도 관련 포인트다. 이번 시즌엔 기존 비디오 감독과 파울 챌린지를 '코치 챌린지'로 통합, 파울 판정을 포함한 모든 심판 판정을 구분 없이 팀당 3회까지 요청할 수 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접촉으로 속공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언스포츠 맨리크 파울(U파울)을 줄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요강이 수정됐고, 하프타임은 기존 12분에서 15분으로 늘었다.

매년 12월31일 밤 경기가 열려 농구 코트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KBL의 대표적인 연중 이벤트 '농구영산'은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KCC와 DB의 경기로 펼쳐진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홈런치고 그라운드를 도는 김혜성. 로이타-연합뉴스

시즌 최종전서 3호포 혜성특급 '유종의 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26)이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을 쳤다.

다저스는 29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코모도어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시애틀 매리너스와 원정 경기에서 6-1로 이겼다.

김혜성은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홈런 1개와 2타점을 기록했다.

이틀 전 시애틀전에 이어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혜성은 미국 진출 첫 시즌을 타율 0.280(161타수 45안타), 홈런 3개, 17타점, 도루 13개로 마무리했다.

김혜성은 0-0으로 맞선 2회 2사에서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의 3구째 시속 150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는 124.7m를 기록했고, 타구 속도는 시속 163.5km가 나왔다.

김혜성이 홈런을 때린 것은 6월1일 뉴욕 양키스와 경기 이후 거의 4개월 만이다.

다저스는 이날 선발 투수로 나온 클레이튼 커쇼가 5/3이닝을 피안타 4개, 사사구 1개, 탈삼진 7개로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11승을 거뒀다.

오타니 쇼헤이는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7회 시즌 55호 홈런을 날렸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홈런 56개로 1위, 양대 리그 전체로는 시애틀의 칼 롤리가 60개로 1위다.

오타니는 지난 시즌 자신이 세운 다저스 선수의 시즌 최다 홈런 기록(54개)을 경신했다.

김소형 원방 좋은당黨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여주 100%

인증번호: 제 13100551 호

인증서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유통기한: 2025.9.5 ~ 2026.9.4

열당리! 건강 100세의 기본!
나이가 들어 중장년이 되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 한가지 품은 꾸준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유기농 여주 (국내산)

중 장년이라면 하루 한포!
김소형 원방 좋은당 (80ml X30포)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없이 100% 천연재료 사용.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조원: (주)엔트리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1길 30 유통전문판매원 (주)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남신빌딩 4층

종년의 자신감!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지키세요!
탄수화물로 지친 우리 몸!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풀어주세요!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여주에서 유래한 유기농 여주만을 100% 담아냈습니다.

드시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 하루 한 포면 모두 OK!

그 외에 여주와 궁합이 잘 맞는 9가지 원료를 함유!

돼지감자 (국내산)

바나바

하루 한포, 섭취해 보십시오!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바나바잎이 듬뿍!

신중하게 선별한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소형 한의원(원장)

김소형 원방 좋은당이 필요하신 분들!

배나오고 음주가 잦은 중년 /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 / 회식,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 / 쌀밥과 국수를 좋아하는 분 / 운동이 부족한 연로하신 부모님 / 지치고 피곤한 어르신들

1박스 59,800원	▶ 49,800원
2박스 99,600원	▶ 79,800원
4박스 199,200원	▶ 148,000원
8박스 398,400원	▶ 269,000원

행사기간: 2025년 9월 30일 까지

1588-3398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꽃이랑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혜택